의 잠재전이율을 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2년 9월부터 1997년 8월까지 만 5년간 후두 및 하인두의 편평세포암종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 202명 중 경부병기가 임상적으로 N0인 경우에서 편측 혹은 양측의 예방적 경부곽청술을 받은 환자 6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술로 얻은 경부곽청시료를 병리학적으로 검색하였다.

결 과 : 잠재전이는 성문상부암 25례 중 8례(32%), 성문암은 30례 중 5례(16.7%)의 잠재전이율을 보였으며 하인두암은 9례 중 7례(77.8%)에서 잠재전이를 보였다. 반대측의 전이를 보인 경우는 성문상부암 4례와 하인두암 2례로 6례였으며 6례 모두 동측의 잠재전이도 있었다. 반대측에만 전이가 있는 경우는 없었다.

결 론 : 성문상부암과 하인두암의 경우 동측 경부에 높은 잠재전이율을 보여 N0의 경우에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예방적 경부곽청이 예후에 미치는 영향은 이 집단을 대상으로 장기추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19

최근 15년동안의 경부곽청술에 대한 분석

김광현 · 성명훈 · 김동영*
고태용 · 정한신 · 이상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경부곽청술이란, 경부의 여러 구획으로부터 임파선들을 그 주위의 섬유지방조직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이것은 악성종양의 경부 국소 임파선 전이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술식이다. 상부 기도-소화관 악성종양에서 국소 임파선 전이의 경향은 여러 가지 요인들과 관련이 있는데, 특히 병리학적 소견이나 원발종양의 T병기와 위치 등이 중요한 요인이다.

1983년 8월부터 1998년 8월까지 15년 동안 서울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시행한 300례의 경부곽청술에 대한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원발종양의 위치 및 T병기, 경부곽청술의 종류를 분석하였고, 경부곽청술 후의 국소 임파선 재발률을 구하였다. 또한 임상적으로 경부 임파선 전이가 없던 경우에서 예방적 경부곽청술을 시행하여 병리학적으로 임파선 전이가 양성일 확률과 그 원발종양의 위치를 조사하였다. 이중 병리조직의 재검이 가능하였던 140례를 대상으로 경부임파선의 피막외침범 유무를 조사하여 생존률 및 재발률을 분석하였다.

원발종양의 위치는, 성문상부암이 22.1%로 가장 많았고, 갑상선암이 16.2%, 구강암과 구인두암이 각각 14.7%의 순이었다. 병리학적 T병기는 T1,2가 39.3%, T3,4가 60.7%로 진행된 원발종양이 많았다. 경부곽청술의 종류는, 포괄적 경부곽청술이 66.7%로 이중 변형적 근치적 경부곽청술 1형과 2형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선택적 경부곽청술은 33.3%로 이중 견갑설골근상부 경부곽청술이 가장 많았다. 경부곽청술 후의 국소 임파선 재발률은 5.9%이었고, 두 수술군간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예방적 경부곽청술은 30.9%에서 시행하였고, 이중 23.8%에서 병리학적으로 임파선 전이가 양성이었는데, 특히 구강암에서 가장 흔하였다.

최근에는 근치적 경부곽청술보다는 척수부신경을 보존하는 변형적 근치적 경부곽청술이나 선택적 경부곽청술을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재발률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다. 잠재적 경부 임파선 전이가 흔한 구강암이나 구인두암, 성문상부암은 예방적 경부곽청술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20

두경부 영역에서 발생한 중복암에 대한 임상적 고찰

이병철* · 심윤상 · 이용식 · 이국행
원자력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배 경 : 원발성 중복암은 1869년 Billroth에 의해 처음 보고된면서 생존률이 증가함에 따라 중복암의 보고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원발성 중복암은 전이여부와 함께 치료과정에서 항상 관찰하여 조기 발견, 조기 치료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목 적 : 이에 저자들은 악성종양으로 진단된 환자에

서 타 장기에 또 다른 중복암이 발생한 치험례의 임상상을 관찰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원자력 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에서 치험한 원발성 중복암 환자 38례를 중복암의 진단동기, 진단방법, 진단시기, 원발암과의 관련성, 예후 등에 대해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 과 : 구강, 구인두암과 식도암이 중복된 경우가 7례로 가장 많았고, 하인두암과 식도암이 중복된 경우가 4례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후두암과 폐암이 중복된 경우가 4례, 후두암과 식도암이 중복된 경우가 2례였다. 속발암이 발견되는 평균 기간은 4년이었다. 동시기암(synchronous)은 14례이고 이중 2례가 치료를 포기하였다. 이시기암(metachronous)은 24례로 이중 11례가 치료를 포기 하였다. 속발암에 대해 치료를 한 23례 중 8례는 생존이 확인되었으며, 치료를 안한 경우는 생존한 경우가 없었다. 치료 결과는 6개월 이내 발견하여 치료한 경우 50% 생존했으며, 6개월 이후 5년 사이 발견한 경우는 13 % 생존하였다.

결 론 : 1) 후두암과 폐암이, 구강 및 하인두암과 식도암이 연관성이 있어 Field cancerization설과 부합하였다. 2) 중복암이 발견되는 동기가 주로 환자의 증상호소였으며, 이는 6개월 이후에 발견된 경우에 더욱 현저하였다. 정기적인 추적검사의 중요성을 확인할수 있었다. 3) 6개월 이내에 발견된 경우 원발암과 속발암을 같이 치료할 수 있었고,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었다. 반면 6개월 이후에 속발암을 발견한 경우에는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4) 진단방법으로는 내시경검사와 식도조영술이 유효하였다. 5)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추적, 내시경검사, 식도조영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속발암 발견시 적극적인 수술적 치료가 권장되었다.

21

국내 두경부암 등록지 양식 및 컴퓨터 입력 프로그램 소개

노 영 수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여러 임상 기록자료를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임상연구에서 항상 당면하게 되는 문제는 모아진 자료의 불균질성이다. 이것은 또한 후향적 연구에서 얻은 결론의 신뢰도를 떨어지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에 근거하여 일찌기 다른 암연구그룹에서는 암발생률, 유병률 및 다양한 암치료 후 생존률 등의 자료를 표준화시켜 체계화된 방법으로 등록하는 제도를 만들고, 수십년간 모은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암의 예방 및 치료에 중요한 기여를 한 바 있다.

대한두경부외과연구회에서는 국내 두경부암 등록양식의 통일과 이를 통한 보다 체계적인 암환자의 관리를 위하여 "국내 암등록지 양식 통일화 작업을 위한 준비모임"을 결성하여 여러 차례의 회의과정과 실무과정을 거쳐 1차 두경부암 등록지 양식과 컴퓨터 입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은 기존의 데이터관리 프로그램 및 통계처리 프로그램과 호환을 가지는 Window 95용 Delphi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들도 쉽게 입력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향후 실제 프로그램의 운용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점차 보완하여 수정, 발전시킨다면 앞으로 국내 두경부암 환자의 역학조사 및 임상연구 뿐만아니라 통일된 진단 및 치료양식의 개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한두경부외과연구회에서는 두경부암 등록지 양식에 대한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간 진행된 작업과정 및 실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22

비인강암의 3-차원 입체 조형치료 -이하선 기능 보존을 위한 3-차원 치료계획의 고안-

임지훈* · 김귀언 · 이상욱 · 금기창 · 박 원
박희철 · 조재호 · 서창옥 · 이상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세암센타 치료방사선과학교실

목 적 : 비인강암에서 방사선 치료는 근치적 목적으